

2023. 12. 6. (수) 10:00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에 대 한 질 문

- ☐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 ☐ 농업 ODA 관련
- ☐ 지역개발혁신과 지역대학 협력 관련



이병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응비하는 김제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확보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
하여 일부 잘못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바로잡고자 시장
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를 비롯하여 동서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관할권 결정이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와 관련하여 새만
금 개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 전라북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협력 사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광역협력 사무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나 조합, 협의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건 아닌지 질문드리고, 이러한 광역협력 사무에 대하여 김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개발을 위한 광역협력 사무에 대한 분리된·이원화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특별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의 제도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상호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광역협력사무를 수행하는 것임에 반하여 새만금특별시는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특별시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메가시티’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새만금특별시를 주장하는 의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새만금특별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새만금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 ODA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ODA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어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화하였으며, 얼마 전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농업 ODA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ODA 사업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최근 ODA의 동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협업의 확대를 통해 개발협력 전 주체의 파트너십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 ODA 분야의 예산을 활용하여 김제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외교부나 농촌진흥청 등에 제안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경우,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FAO 산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약정을 체결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체적으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과정을 운영, 24개국의 석사 학위자 25명과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 19명 등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세계수산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제안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FAO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면 지역 및 국가 브랜드 창출,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해양·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인구유입 효과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의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세계농업대학이 전북에 설립되면 전북의 농생명 산업의 성장·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서 세계 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과 대학과의 연계협력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서는 2014년에 폐교된 벽성대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지역경제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화두 중 하나는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라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체계의 이론적 기초는 마샬(Marshall)이 발전시킨 산업지구이론에서 시작되지만, 최근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보편적 개념 정의는 “대학·연구기관·기업·지자체 등 혁신주체가 상호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공동학습·공동연구개발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수준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선정과정에서 ‘지역과 연계’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다한 지방대학들은 대학이 지역과 어떻게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것인지 매우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북대의 경우 ‘서남대 폐교부지 재생사업’을 전국 최초로 제안하여 큰 주목을 받았고, 전북대학교가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남원에 글로벌캠퍼스를 설립하고 K-컬처, 커머스, 과학기술 등 3개 학부를 신설해 12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고, 외국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국어학당과 창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남대 폐교부지가 전북대의 글로벌캠퍼스로 탈바꿈 하면서, 지역의 활력이 돋고,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이러한 성과는 남원시장의 리더십과 남원시청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남원시장은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라는 신규 공약을 제시하고, 서남대 부지를 어떻게든 활용하고자 다양한 정책개발 활동을 하였습니다.

남원시는 방치된 서남대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번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 선정과정에서도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서남대 부지를 1200여명의 유학생이 들어오는 전북대 글로벌캠퍼스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의 소극적인 행정과는 분명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도내 대학과 연계 협력하여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RIS)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지역혁신사업의 사업 목표와 구체적인 달성시기, 그 효과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선정은 앞으로도 2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은 2024년과 2025년에 다시 한번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해 도전할 것이고, 도내 지자체들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벌써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의 중심에 놓여있는 김제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만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도내 지역대학들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협력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